

「영신논단」 2018년 제6호, pp. 67-90

헤르만 바빙크의 종말론에 대한 소고1)

: 『개혁교의학』 제63장 ‘세상의 완성’을 중심으로

이 정 환²⁾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심판 날의 개념
2. 부활
3. 심판
4. 형벌
5. 갱신과 복
6. 구원의 수효

III. 결론

I. 서론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³⁾는 흔히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및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1921)와 함께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의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린다. 도스꺼(Henry Elias Dosker, 1855-1926)는 바빙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헤르만 바빙크 박사의 깊이 있는 연구, 끊임없는 근면함, 제한적이지 않은 지평, 다양한 유형의 관심사,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력은 그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랑이자 범세계적인 칼빈주의의 지도자로 만들었다.”⁴⁾

특별히 국내 학술지에는 2013년도에 바빙크의 신학사상에 대한 논문들이 한꺼번에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바빙크의 주저인 『개혁교의학』 전 4권이 네덜란드어에서 한글로 직역되어 초판 간행된 것이 2011년 10월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⁵⁾ 이 저서의 발간사에서 백금

1) 헤르만 바빙크 탄생(1854) 160주년을 기념하여 본 논문을 씀.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와 종말론’ 과목의 기말 연구논문 (2014년도 1학기)으로 제출한 것임.

2) 현풍세교회 담임목사, 본교 신대원 16기 졸업.

3) 바빙크의 삶과 신학에 대한 소개는 다음의 자료를 보라.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과주: 살림출판사, 2007). 보다 간단한 것으로는 다음의 자료를 보라. 이상웅, “헤르만 바빙크와 그의 주저 『개혁교의학』 (Gereformeerde Dogmatiek),” 『신학지남』, 318 (2014).

4) Henry Elias Dosker, "Herman Bavinck,"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20:3 (1922), 448. "Dr. Herman Bavinck, whose deep researches, tireless industry, boundless horizon, wide variety of interests and stirring eloquence made him the pride of the Reformed Churches of the Netherlands and a leader of world-wide Calvinism." (필자의 번역임).

5)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전4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이하 인용 시 『개혁교의학』으로 칭함. 영문으로 완역 출간된 것도 2008년 4월

산 목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최고급 단계의 교리서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빙크의 『개혁교의학』과 같은 고급 단계의 조직신학 책을 끈기있게 독파할 수 있다면 동네 뒷동산이나 낮은 산들만을 동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맞볼 수 없는 고산준령을 등정했을 때의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이 이렇게 풍부하구나!’하는 감탄과 더불어 ‘성경 진리의 광택이 이렇게 거대하구나!’하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급, 중급 단계 정도의 책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책입니다.⁶⁾

한편 제임스 팩커(James Packer, 1926-)는 『개혁교의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알차면서 명료하고, 노력이 요구되나 만족스러우며, 넓고 깊고 예리하고 견고하기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의학 가운데 최상의 작품성을 지닌다.”⁷⁾ 이상웅은 『개혁교의학』의 한글 번역본 완간에 부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랫동안 헤르만 바빙크와 화란개혁주의에 관심을 기울여 온 논자는 이와같은 바빙크의 주저 『개혁교의학』의 완간이야 말로 한국신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는 서구신학에 대한 무분별한 사대주의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신앙고백적이면서도 당대까지의 신학과 철학 그리고 과학적 논의들과 부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신학작업을 했던 바빙크의 신학함의 자세가 여전히 우리나라 다음 세대에 롤 모델(roll model) 내지 탁월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백수십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한국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뿌리 내지는 초석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바빙크 주저의 완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⁸⁾

『개혁교의학』은 총 4권으로써 전체 11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에 종속되어 연결된 총

로써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영문 번역본 기획이 시작되도록 편집자 존 볼트(John Bolt, 1949-) 교수에게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은 1990년도 초반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 유학중이던 한인학생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한역본이 영역본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이상웅, “헤르만 바빙크와 그의 주저 『개혁교의학』 (*Gereformeerde Dogmatiek*),” 79, 83-84. 바빙크와 관련된 영문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hermanbavinck.org/> The Bavinck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전자저널 *The Bavinck Review*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bavinckinstitute.org/review/>

- 6) 『개혁교의학』 4권, 13. 『개혁교의학』 전 4권을 일독한 필자의 판단으로 볼 때, 『기독교 강요』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고 교회사적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다면, 이 책을 읽기 시작해도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책은 역사 신학적, 교리사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귀납적 서술 형식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끈기를 가지고 읽어야 함을 뜻한다). 전체 분량은 『기독교 강요』의 1.5배가 넘는 듯하다. 이 책 표지에 실린 추천사 중에서 두 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의 가장 뛰어난 현대 신학자 중의 하나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우리말로 읽게 된 것은 우리 시대의 큰 특권입니다. 이 책에는 교부 신학, 개혁과 신학, 현대 신학, 철학, 과학 등의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권문상,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헤르만 바빙크는 보편교회 교부들의 신학과 개혁과 정통주의 신학의 유산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교리학을 세운, 사실상 마지막 신학자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개혁신학의 절제된 장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김남준, 열린교회 담임목사).
- 7) 『개혁교의학』 1권, 17-18.
- 8) 이상웅, “헤르만 바빙크와 그의 주저 『개혁교의학』 (*Gereformeerde Dogmatiek*),” 60.

63장으로, 또한 장에 종속되어 연결된 총 580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1권에서는 서론과 학문의 원리 및 계시론을 다루고 있고, 2권은 신론과 창조론 및 인간론을 다루고 있다. 3권에서는 죄론과 기독교론을 다루고 있으며, 3권 말미부터 시작하여 4권에는 구원론(구원의 서정), 교회론, 은혜의 방편,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 종말론은 11부에 편성되어 『개혁교의학』의 끝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개혁교의학』에 나타난 바빙크의 종말론을 간략하게 살펴봄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11부 종말론의 마지막 장인 63장 ‘세상의 완성’ 부분에서 나타난 바빙크의 종말사상을 다루고자 한다.⁹⁾ 본론에서 주요 논점들을 요약한 후에, 결론에서 그의 종말론에서 보이는 특징을 조명함으로써 마무리 지을 것이다.¹⁰⁾

II. 본론

1. 심판 날의 개념

바빙크는 성경에 따라 지금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을 주장한다. 즉, 시작된 종말론의 개념을 견지하고 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으며(고전 10:11; 히 1:2, 9:26; 요일 2:18), ‘다가올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즉, 그는 종말이 지금 시작되었으나, 다가올 시대에 완성된다는 개념을 가진다. 이 다가올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심판 날이다. 이것은 바빙크가 가지는 심판 날의 시기적 개념이다.¹¹⁾

바빙크가 가지고 있는 심판 날의 시간적 개념은 과정적이다. 또한 그는 부활과 심판이 현재의 시간 개념 안에서 24시간이나 60분이라는 제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살아남은 자의 변화와 죽은 신자들의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날 지라도(살전 4:15-17), 재림 이후의 사건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는 심판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그리스도의 출현,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의 변화,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 세상이 불타고 새롭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분명히 일정한 기간에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¹²⁾

즉, 바빙크는 심판 날에 대하여 시기적으로는 종말론적 개념에서 다가올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시간적 개념에 있어서는 부활은 순간적이지만, 심판은 연속적, 단계적이므로 일정한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심판 날은 시간적 의미에서 과정적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이 기간을 정확히 얼마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24시간이나 60분과 같은 시간 개념은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11부 종말론은 61장 중간 상태, 62장 그리스도의 재림, 63장 세상의 완성이 구성되어 있다. 63장은 앞의 61, 62장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그 앞의 개혁 교의학에서 서술된 모든 내용의 근거 위에서 정리된 것이다.

10) 부와 장에는 각각의 제목이 달려 있지만, 장 아래에는 (항별 구분은 되어 있으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이 달려 있지 않다. 필자는 63장을 면밀히 읽고, 주요 논점들을 본고의 본론에서 소제목으로 삼아서 각각 요약한다. 항별 구분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개혁교의학』 4권, 822.

12) 『개혁교의학』 4권, 822.

2. 부활

1)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

바빙크는 부활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따르는 첫 사건으로 본다. 그리고 신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주장한다(단 12:2; 마 5:29-30, 10:28; 요 5:29; 행 24:15; 계 20:12-13). 또한 신자만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불신자의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본다(요 5:29).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이 성경에서 주된 부활이 아닌 까닭은 불신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일시적 죽음이 초래한 필연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불신자에게서 부활은 일시적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심판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성부께서 불신자의 부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심판의 권한을 성자에게 주었으며, 영혼과 육체 둘 다를 가진 전인(全人)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¹³⁾ 즉, 불신자에게서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것이며,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은 생명과 그리스도와의 전인적 교제를 위한 것이다.¹⁴⁾ 결국 바빙크는 부활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가

13) 『개혁교의학』 4권, 823.

14) 바빙크는 분명히 인간의 전인성을 중요시 하지만 중간상태에서의 육체의 분리를 인정하고, 부활은 중간상태 이후 영혼과 육체의 합일적 재창조로 본다. 중간상태의 신자의 상태는 영혼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시적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본다. 즉, 그리스도와의 전인적 교제는 부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본다. 『개혁교의학』 4권, 717, 823. 바빙크는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는 헬라적 이원론을 배격하고, 영, 혼, 육의 삼분법도 부정한다. 그는 영과 혼이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이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지하면서도, 영과 혼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영혼과 육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형성되어 지어진 선한 것이라고 본다. 『개혁교의학』 3권, 693-694, 698-6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분적-전인적 인간론을 주장하는 근래의 논문으로써 다음을 참고하라. 성종현, “인간의 본질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장신논단』, 44:1 (2012), 59-86. 현대 신학에서 헬라적 이원론과 헬라적 영혼불멸사상을 극단적으로 배격한 결과로써 각광받게 된 단일체적 인간론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부인하는 경향(그 결과는 전인으로서의 완전죽음 사상 혹은 즉각적 부활 사상, 다른 말로, 죽음 안에서의 부활 사상이 있다)에 대한 성종현의 논박은 다음과 같다. “헬라적 이원론적 인간관과 헬라적 영혼불멸사상은 신구약성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성서적 견해요 잘못된 입장이다. 성서도 영혼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로 하나된 통전적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서 육체를 상실한 영혼의 낙원이나 음부에서의 대기상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헬라적 이원론을 토대로 한 영혼불멸사상과 구분된다. 신약성서의 통전적인 인간관, 죽음 및 사후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사상은 헬라 철학과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상적 뿌리를 구약성서와 이스라엘의 계시신앙에 두고 있다. 헬라의 이원론적 인간관과 영혼불멸사상을 배척하는 나머지 구약성서와 유대복시문학에 뿌리를 둔 신약성서적 영혼관과 인간관 그리고 사후 영혼의 대기처로서 낙원과 음부사상 일체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은 신약성서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미리 내리고 있는 전제, 즉 히브리적인 것은 헬라적일 수 없고 헬라적인 것은 히브리적일 수 없다는 전제는 수정이 필요하다.” 성종현, “죽은 자의 중간상태와 부활의 몸,” 『신약논단』, 19:2 (2012), 484. 신자가 부활체를 얻는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주장은 송인규에 의해 강력하게 변호되었다. 송인규, “신자는 언제 부활체를 얻는가(1),” 『신학정론』, 14:2 (1996), 487-507. 송인규, “신자는 언제 부활체를 얻는가(2),” 『신학정론』, 15:1 (1997), 192-228. 송인규는 중간상태에서는 탈신의 상태에 있으므로 전인성의 측면에서는 불완전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체라는 측면에서는 복된 상태에 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면서, 육체를 가지지 않은 천사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분적 인간론 및 영혼과 부활체의 재결합을 부활로 보는 개혁교회들의 몇 가지 신조들은 다음과 같다. 제 2 스위스 신앙고백(1566년) 7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는 또 사람이 하나의 인격에 두 부분으로 구별되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영혼은 불멸하지만(육체와 분리되어도 자거나 죽지 아니한다), 육체는 죽어진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고, 그 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생명 또는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지낼 것이다.” 벨기에 신앙고백(1561년) 37장은 최후 심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죽은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은 전에 살았던 바로 그 육체와 연합을 하여서 하나가 되 어질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문 57.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답. 나의 영혼이 이 생명 이후에 즉시로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구별되고, 성경의 관심은 신자의 부활에 있다고 본다.

2) 부활체의 성격

바빙크는 부활체의 개별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보존된다고 본다. “... 부활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뿌려진 종자로부터 다른 종자를 일으키듯이 죽었던 몸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가르친다(고전 15:36 이하).”¹⁵⁾ 또한 부활사건이 두 번째의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빙크는 부활체가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음에 무게를 둔다. 그는 화장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화장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을 받고 부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화장이 이교도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며 기독교 관습과 배치된다는 이유라고 본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매장은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더 잘 어울리는 방식이며, 따라서 인공적인 시체 보존이나, 기계적인 파괴를 피하고 시체들을 땅의 품에 맡겨 부활의 날까지 쉬게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바빙크는 부활체의 극단적인 연속성은 비판한다. 즉, 물질의 총체성이 부활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땅의 사망으로부터 모아서 몸의 다양한 부분들이 이 전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과 크기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의 입장은 단호하다. “부활은 ‘물질의 총체성’으로 되돌아가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¹⁷⁾ 오히려 바빙크는 땅의 육신과 부활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유기적 존재들의 육체와 무기체 피조물들의 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전 15:39-41). 그리고 또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입증하듯이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 사이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전 15:42-49). 전자는 혼에 의해 살아 움직이고 변화되는, 혈과 육으로 구성된 자연적 몸이다. 후자는 참된 몸이며, 더 이상 혼이나 영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인 몸이다. 이 미래의 몸은 더 이상 혈과 육으로 구성되지 않고, 성적 생활을 초월하며(마 22:30 이하),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전 6:13), 이런 점에서 심지어 인간이 타락 전에 지녔던 몸과도 구별된다. 이 몸은 썩지 않으며, 영적으로 변화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다(고전 15:42이하, 빌 3:21).¹⁸⁾

그렇다 할지라도 바빙크는 부활체의 개별 정체성과 연속성의 보존을 지지한다.

... 이 부활의 몸의 정체성은 여기 지상에서 특정한 개인의 고유한 몸을 표현하는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나의 영혼과 연합을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8년) 32장 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지막 날에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성질은 다를 것이고, 육체와 다시 영원히 결합될 것이다.” 이상 다음 자료에서 인용함. 박일민, 『개혁신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2002), 195, 326, 380, 535. 필자는 바빙크와 상기 저자들 및 개혁주의 신조들에 동의하므로 이분적-전인적 인간론, 중간 상태에서 육신을 벗은 상태의 영혼의 낙원 거주, 예수님 재림시의 몸의 부활 및 영혼과의 합일을 지지한다.

15) 『개혁신회의학』 4권, 824.

16) 『개혁신회의학』 4권, 825. 이와 관련하여 바빙크가 제시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A. Kuyper, *Ons Program* (Amsterdam, 1880), 820ff. K. Sartorius, *Die Leichenverbrennung innerhalb der Christlichen Kirche* (Basel 1886). P. G. Groenen, *Lijkverbranding* (Utrecht 1910).

17) 『개혁신회의학』 4권, 826.

18) 『개혁신회의학』 4권, 827-828.

동일한 조직체와 형태, 동일한 윤곽과 유형이 부활의 몸에 보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겪는 모양의 변화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과 연속성은 계속 보존된다. 인간의 몸은 죽은 뒤 분해되어 그 물질 성분에 따라 온갖 다른 유기체들로 변할 수도 있지만, 땅에는 부활의 몸을 결정할 토대가 되는 어떤 것이 계속 남아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결코 알아낼 수도 없다.¹⁹⁾

이처럼 바빙크가 생각하는 부활체는 현재의 육신과는 차별된 훨씬 고상한 그 무엇이면서도, 현재의 육신이 가지는 것과 같은 개별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한 현재의 육신과의 일정한 연속성을 보존한다. 즉, 바빙크는 지상의 몸과 부활체 사이에 개별 정체성과 유형의 측면에서는 연속성을 인정하고, 물질적 구성 성분의 재집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불연속성을 주장하며, 연속성의 경우는 높은 차원 혹은 영화로운 상태로의 승격이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심판

1) 심판자

바빙크는 부활 이후 심판에 대하여 언급한다. 바빙크는 심판을 성부에 의한 그리스도를 통한 집행으로 설명한다.

...성경은 심판을 자주 성부에게 돌리고 있다(마 18:35; 살후 1:15; 히 11:6; 약 4:12; 뱀전 1:17, 2:23; 계 20:11-12). 하지만 성부는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재판장으로 임명한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의 사역을 행사한다(요 5:22, 27; 행 10:42, 17:31; 롬 14:9). 따라서 그리스도는 언젠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심판대 앞에 출두시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이다(마 25:32; 롬 14:9-13; 고 후 5:10; 딤후 4:1, 8; 뱀전 4:5; 계 19:11-21). 그리스도는 결국 자신의 나타남으로 이미 심판을 초래했고, 역사가운데 이 심판을 지속하고 종말에 완성할 인자이기 때문이다.²⁰⁾

또한 바빙크는 성도들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한다. 즉,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가 악한 천사들과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미개한 민족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그는 양들을 이미 자기 오른쪽에 두었고 자신은 자기 천사들과 성도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바울이 명백하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4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 특히 전후문맥을 살필 때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²¹⁾

19) 『개혁교의학』 4권, 828. 바빙크는 주로 신자의 부활체를 대상으로 논술하고 있으나, 불신자의 부활체에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불신자의 부활체는 신자의 부활체와 같은 영화로운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비참한 본질을 가질 것이다. 원씨와 장씨의 대화를 참고하라. “원씨: 사람이 다시 사는 때에 악한 사람의 몸도 선한 사람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장씨: 전혀 다릅니다. 선한 사람의 몸은 높고 귀하고 또 빛나지만, 악한 사람의 몸은 귀함도 없고 빛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몸도 다시 죽지 않게 하셔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윌리엄 밀튼, 『장원 양우 상론』, 마포삼열 옛한글역, 김홍만 · 이스데반 현대어 공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45-46.

20) 『개혁교의학』 4권, 831.

21) 『개혁교의학』 4권, 833.

더 나아가, 바빙크는 교회가 착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도 참여한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하나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는 세상과 천사들이 교회에 대해 잘못된 것을 마치 자신에게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마 25:40, 45; 막 9:41-12). 심지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런 심판은 착한 천사들에게까지 확대된다(고전 6:3). 왜냐하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련되어 수행한 봉사 에 따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²²⁾

2)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에 대한 바빙크의 생각은 이러하다. "인간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는 영원한 복과 화를 결정한다. ...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서 주된 문제는 신앙 또는 불신앙이다."²³⁾ 그러면서 그는 이 신앙의 문제를 복음이라는 단어와 병치시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다(요 6:29; 요일 3:23).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5:24),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요 3:18, 36).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일차적으로 복음이다(요 12:48)."²⁴⁾ 그러나, 바빙크는 복음의 율법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행위가 고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이 복음은 율법에 대치되지 않고 심지어 율법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요구 자체는 이미 율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복음은 율법의 회복과 완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서 고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성취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책들에 기록된 모든 행위들이다(전 12:14; 고후 5:10; 엡 6:8; 뱀전 1:17; 계 20:12, 22:12)."²⁵⁾ 결국, 바빙크는 심판의 이중적 기준, 즉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통합시킨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율법과 복음 두 부분이다."²⁶⁾

바빙크가 이러한 심판의 이중적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 적용 대상을 또한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시 이분화시킨다.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본성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진 율법에 대해 범죄한 이방인들 역시 모세의 율법 없이 망할 것이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롬 2:12)." 즉, 바빙크는 율법에 있어서 다시 이중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모세의 율법과 이방인에게 있어서의 양심의 율법이다.²⁷⁾ 바빙크는 복음을 알고 대적한 사람들과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을 구분한다. 즉, 바빙크는 복음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동일한 심판에 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²⁸⁾

결과적으로 바빙크는 심판의 이중적 기준을 불신자에게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1)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 불신자, (2) 모세의 율법을 들은 유대인 불신자, (3) 복음을

22) 위의 책.

23) 『개혁교의학』 4권, 831.

24) 위의 책.

25) 위의 책.

26) 위의 책.

27) 복음이 없는 이 양자 모두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따른 심판은 곧 멸망 안에서의 형벌의 차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28) 『개혁교의학』 4권, 832.

들은 불신자, (4)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구분될 것을 본다.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5) 모세의 율법도 복음도 듣지 못한 불신자와 (6) 모세의 율법과 복음을 모두 들은 불신자가 당연히 따라 나올 것이며, 이들 각기 다른 유형의 불신자들은 각각 율법에 따른 죄과와 복음에 따른 불신앙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심판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본다.²⁹⁾ 이것은 차별이 없는 심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공정한 심판이다. 그는 이 점을 멸망의 심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신자의 경우에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동시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3:18, 5:24), 죽은 신자들은 긴 흰옷을 입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으며(고후 5:8; 빌 1:23; 계 6:11, 7:9, 14), 그리스도가 자기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올 것이라고 증거한다(살후 1:10)."³⁰⁾

4. 형벌

바빙크는 악인들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받을 형벌의 영원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반대하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 가설들을 제시한 다음, 이 모든 것들을 반박한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반대하는 이유들으로써 다음의 다섯 가지가 제시된다. (1)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와 모순되고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2) 유한한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은 비례하지 않는다. (3) 영원한 형벌은 죄인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가치가 없다. (4)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기간일 뿐이다. 결국은 소멸하거나, 전적으로 회복된다. (5)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가르친다.³¹⁾

이어서 바빙크는 이러한 주장들 위에서는 악인들의 결국에 대하여 세 가지 가설들이 세워진다고 말한다. (1) 회개의 가능성은 단지 중간 상태에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영원히 이르기까지 여전히 열려있다 (2) 지속적인 회개와 정화에 대한 이 견해는 자연스럽게 종말에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보편구원론과의 이론에 이르게 된다. (3) 조건적 불멸론으로써 영혼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불멸하게 되고, 따라서 악인들과 마귀들은 자연적 멸망으로 인해 언젠가 틀림없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뒤따른다.³²⁾

바빙크는 이에 반해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그 누구도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교리에 대해 더 자주 그리고 더 넓게 언급한 사람이 없다. (2) 이런 가장 바깥 어둠 속에서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성경은 인간의 불멸을 선명하게 그리고 반박할 수 없게 가르친다. 조건론은 죄의 형벌이 멸망을 인간 실체의 소멸로 여김으로써 윤리적 존재를 물리적 존재와 혼동한다. (4) 성경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모든 귀신들까지 구원받게 된다고 그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5) 영원한 형벌을 승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29) 위의 책.

30) 『개혁교의학』 4권, 832-833.

31) 『개혁교의학』 4권, 836.

32) 『개혁교의학』 4권, 837-839.

다도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 무결함과 죄의 깊은 죄성을 깨닫는 일이다. (6) 만일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순되지 않으며 심지어 모순될 수도 없다. (7) 영원한 형벌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위선을 부리는 큰 위험에 빠진다. 그 사람은 선함과 공훈함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사랑이 풍성한 자로 행세하는 것이다. (8) 만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핏값은 너무도 값비싼 것이었다.(즉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이 아닌 것을 위해, 예수님이 피흘려 죽으셨다면 그 피흘림은 그 가치에 비해 과도한 지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속죄의 죽음으로 성취한 천국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지옥을 전제하고 있다.(즉, 그리스도의 죽음의 엄청난 가치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을 담지하고 있다)³³⁾

이어서 바빙크는 영원한 형벌에서 조차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점에서 하나님은 자비가 나타난다고 본다.

형벌은 본질상 공의를 유지하는 것이며, 특별히 심판 후에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징벌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형벌의 정도가 다양하다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친다. 저주의 형벌은 똑같지만, 감각적 고통은 다르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받는다(마 10:15, 11:24, 23:14, 24:51; 눅 10:12, 14, 12:46-47; 고후 5:10 등).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손상되지 않고 결코 정당한 비난을 받지 않는다.³⁴⁾

또한 바빙크는 죽음 이후에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³⁵⁾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여전히 회개와 용서의 여지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덧붙여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라는 문구는 인자를 거역한 죄가 여전히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³⁶⁾

따라서 지옥 형벌에 대한 바빙크의 입장은 영원하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불신자가 죽은 이후에는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바빙크는 결론적으로 지옥 형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나님이 보내는 고통은 자신이 기뻐하거나 천국의 복된 자들이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따라서 이 궁극적 목적에 의해 그 크기와 무게가 정해진다."³⁷⁾

5. 갱신과 복

(1) 갱신의 개념

33) 『개혁교의학』 4권, 841-848.

34) 『개혁교의학』 4권, 848.

35) 바빙크는 죽음 이후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비판하였다. 다음 자료를 보라. 『개혁교의학』 4권, 744-749.

36) 『개혁교의학』 4권, 848.

37) 『개혁교의학』 4권, 849.

바빙크는 악인의 심판 이후에 갱신이 시작된다고 본다. 갱신의 주요 개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이다. 그는 갱신을 완전한 소멸이나 혹은 새로운 두 번째 창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한 그의 사상은 다음의 글을 통해 확인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썩어 오염된 동일한 인류, 동일한 세상, 동일한 하늘과 땅을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데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고후5:17)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태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도록 이 세상의 현재 모양도 지나가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세상도 역시 물리적 창조가 아니라 영적 갱신인 중생이 일어날 것이다.³⁸⁾

(2) 천상의 복과 상급

바빙크는 천상의 복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또는 육체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에, 거룩과 영광, 미덕과 행복, 도덕적 세계 질서와 자연적 세계 질서 역시 결국 조화롭게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³⁹⁾ 그렇지만 영적인 복이 가장 탁월하고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천상의 복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울로 단지 그의 형상을 볼 뿐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그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 장래 구원의 본질을 결정한다."⁴⁰⁾

상급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복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찬란함과 영광에서 차이가 있다(단 12:3; 고전 15:41). 모든 자녀들을 영접하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요 14:2). 그리고 교회들은 모두 그 신실함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교회의 왕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보물과 왕관을 받을 것이다(계 1-3장)."⁴¹⁾ 즉, 바빙크는 신자가 이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룬 선행이 천국의 상급을 분배하는 일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의를 믿음으로 전가 받은 사실에 영생을 관여시킬 때, 천상의 복은 신자들 편에서의 모든 공로가 전적으로 배제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한다. 비록 그 복을 누리는 상태의 차등은 이생에서의 선행이 참고되지만 말이다. 바빙크는 선행에 따른 영광의 분배 역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단지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만이 아니라 또한 이 믿음으로 선행한 일을 행한 자에게 다양한 영광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일을 영화롭게 한다."⁴²⁾

6. 구원의 수효

바빙크는 이어서 이방인과 유아들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며 역사적 기술을 해나간다. 결론

38) 『개혁교의학』 4권, 851.

39) 『개혁교의학』 4권, 855.

40) 『개혁교의학』 4권, 857.

41) 『개혁교의학』 4권, 865.

42) 『개혁교의학』 4권, 866.

적인 그의 언급은 이렇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관해 긍정적 의미에서나 부정적 의미에서 단호하고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⁴³⁾ 바빙크는 구원의 수효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인다.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하다. 선택받은 자들의 수효는 우리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개혁과 신학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수효가 그 어떤 이유로나 그 어떤 관점에서든 다른 신학에서보다 더 적은 것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다. 사실 중요한 점에 있어서, 개혁과 고백이 다른 어떤 기독교 고백보다 더 관대하고 더 넓은 견해를 지닌다. 개혁과 신학은 구원의 가장 깊은 궁극적 원인을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하나님의 영원한 공휟하심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하나님의 전능하고 값없이 주는 신비로운 풍성한 은혜에 두고 있다.⁴⁴⁾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성인들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의 총 수효에 대하여 인간 편에서 결론짓기 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를 것을 추구한다.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은혜의 방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더 많이 의지하는 셈이다. 이 부분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오늘날 상당수의 개혁주의 신학자 및 목회자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개혁과는 먼저 인간이 많은 오류들과 죄 아래서조차 여전히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는 은혜의 크기를 확정하거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⁴⁵⁾ "더 나아가, 그들은 은혜의 방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 없이도 영생을 위하여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⁶⁾

바빙크는 만인 구원을 부정하며, 죽음 이후의 구원의 가능성도 단호히 배제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궁극적 구원의 문제를 은혜의 방편의 효용 여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귀속시킨다.⁴⁷⁾ 그럼으로써 바빙크는 사실상 이방인과 (부모의

43) 『개혁교의학』 4권, 861.

44) 『개혁교의학』 4권, 863.

45) 여기에서 바빙크는 부피어스, 비치우스, 스펜하임의 자료들에 의존한다. G. Voetius, *Selectatum Disputationum Theologicarum*, II, 537, 538, 781, H. Witsius, *Exercitationes sacrae in Symbolum quod apostolorum dicitur et in orationem Dominicam*, II, 2 & 15. F. Spanheim, *Opera*, III, 1291.

46) 여기에서 바빙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IV. xvi. 19)에 의존한다. 이것은 유아세례 문제와 관련된 칼빈의 반박에 속하는 것이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들(제세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롬 10:17) 유아들은 아직 들을 능력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세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신 1:39).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도의 말은 다만 주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흔히 사용하시는 일상적인 절차와 경륜을 지칭하는 것뿐이며, 다른 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불멸의 절대적인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곧, 복음 선포의 수단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내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다음 자료에서 인용함.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하,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0), 412.

47)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에 귀속시킬 때 흔히 인간 편에서 제기되는 것은,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으로써의 복음전도(말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막 16:15). 이 보다 더 복음 전도의 당위성을 설명해 줄만한 것은 없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전도와 상충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복음전도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

믿음 여부를 떠나서)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의 구원문제에 대한 가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긴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가 칼빈주의를 비꼬며 쓴 짤막한 시에 대한 바빙크의 답변이 될 것이다. 관련된 웨슬리의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 언제나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갓 태어난 아기들을 지옥에 채우시네.
 끝없는 고통을 지옥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저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보이실 뿐이네.
 이것은 참으로 소름끼치는 작정일세!
 이것이 지옥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라네! 하나님은(오, 신성모독을 혐오하라!)
 죄인의 죽음으로부터 기쁨을 가지시네.⁴⁸⁾

바빙크는 이와 같은 웨슬리의 편향적인 시에 대해서, 마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는 듯 하다. (1)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는가? (2)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 유기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 받겠는가? 필자는 바빙크의 견해를 온당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이 없이도 하나님은 택자들을 중생 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유기된 자들을 멸망 하기도 하신다), 사람으로써는 죽은 사람들 중에 택자가 누구인지를 결정적으로 알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한 쪽으로 치우쳐버린 웨슬리는 바빙크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침묵할 것을 권고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그러므로 바빙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서 있다. 즉, 은혜의 방편은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혜의 시여자인 하나님의 뜻에 종속된다. 이는 은혜의 방편이 수단이지 은혜의 주체가 아닌 까닭이다. 또한 은혜의 주체인 하나님은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도 은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은행창구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을 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므로, 이것을 통해 은혜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고려는 복음을 듣기를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구로 사용하신다(비록 복음전도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가치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구로 쓰임 받는 매우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진다. 바빙크의 입장은 이 두 관점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에서, 유아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어른들의 구원여부를 인간의 판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빙크의 입장은 복음전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논점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고려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빙크가 가진 생각임이 분명하다.

48) 이 시는 존 웨슬리가 동생 찰스와 함께 발간한 *Hymns on God's Everlasting Love*라는 찬송집에 실린 것이다. 다음 자료에서 재인용함. James I. Packer, "Arminianisms," (pdf 파일, <http://reformedliterature.com/packer-arminianisms.php>), 20.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God, ever merciful and just
 With new-born babes did Tophet fill;
 Down into endless torments thrust,
 Merely to show his sovereign will.
 This is that Horrible Decree!
 This is that wisdom from beneath! God (O detest the blasphemy!)
 Hath pleasure in the sinner's death.

주려함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 살다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고자 함이다(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복음 전도의 충성스러움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⁴⁹⁾ 이렇게 함으로써, 바빙크는 개혁과 신학의 온건함을 내비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

IV. 결론

이상으로 바빙크의 종말론에 대하여 개혁교의학 6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빙크는 (1) 종말의 '다가올 시대'가 시작되는 날을 심판의 날로 규정한다. 이 심판 날은 과정적이다. (2) 신자의 부활에 있어서 물질적 요소의 총체적인 연속성은 피하면서도, 개별 정체성과 유형(혹은 형태)의 측면에서는 이생에서의 몸과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 (3) 심판자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이며, 또한 신자들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와 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심판의 기준은 율법과 복음(혹은 믿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불신자는 각각의 불신 상태에서의 각각의 범죄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이며, 신자는 멸망의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본다. (4)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며 그 고통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5) 형벌의 심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파멸 후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정화 후 재창조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가 누리는 천상의 복은 이 땅의 선행을 따라 차별적인 상태를 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급의 분배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6) 궁극적인 구원의 수효에 있어서는 은혜의 방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의존한다.

이상과 같은 바빙크의 종말론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생 개념이다. 중생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개별 택자에 대한 영적 본성의 새로운 원리의 주입을 말하지만,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즉 온 우주적 갱신을 의미할 수 있다.⁵⁰⁾ "... 온 세상의 원래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 그래서 중생은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재창조의 모든 사역을 포함한다."⁵¹⁾ 바빙크는 종말론 안에 바로 이러한 중생 개념을 견지하고 있다. "물과 성령으로부터의 중생은 만물의 중생에서 완성된다(마 19:28)."⁵²⁾ "사람들의 거듭남은 창조의 거듭남 가운데 완성된다."⁵³⁾ 중생은 파멸 후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의 재창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속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바빙크는 신자의 개인적 부활에 있어서 이 땅의 몸과의 연속성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있어서도 파괴 후 새로운 건설이 아니라, 정화 후 갱신의 입장을 가진다. 이 점은 다음의 문구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결국 구속이란 두 번째,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49) 앞의 각주 47번 참조.

50)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이스테반, 『이것이 중생이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18-32.

51) 『개혁교의학』 4권, 50.

52) 『개혁교의학』 4권, 824.

53) 『개혁교의학』 4권, 852.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그러나 중생은 단순한 연속성만을 담고 있지 않다. 중생은 새롭게 됨이다. 즉,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이자 획기적인 리모델링이다. 이 점에서 개인적인 부활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다. 그러므로 바빙크가 보여주는 중생적 종말론은 중생한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촉진하고, 내세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기대하도록 강력하게 잡아 이끈다.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우주적 갱신 또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중생 개념을 통해서 현재 세상과의 일정한 연속성과, 높은 차원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진 종말의 개념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둘째, 바빙크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송영(doxology)을 추구한다. 그는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 속에서도까지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며, 결국 종말의 궁극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별히 바빙크는 최종적인 구원의 수효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드높인다.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조차도 인간의 멸망이 인간 자신의 불신의 선택에 맡겨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지만,⁵⁵⁾ 바빙크는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주장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는다. 바빙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되심을 종말론에 있어서도 끈질기게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훌륭한 책 『개혁교의학』을 마무리 짓는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데(행 17:28),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만유이며(고전 15:28), 자기 사역의 거울 가운데 자신의 모든 미덕을 반영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⁵⁶⁾

결론적으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바빙크의 종말론은 중생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향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귀결된다.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밑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이 있다."⁵⁷⁾

54) 『개혁교의학』 4권, 851.

55) 이는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주권과 섭리를 묵상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까닭이다. 즉, 우리는 빈약한 신론을 가지도록 강요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인간의 불신의 선택은 제2원인에 속할 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유의할 것은, 이같은 행동들이 자유로우면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같은 행위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이하 계속)" 다음 자료에서 인용함. G. I. 윌리엄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63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스프로울의 해설은 다음을 참고하라. R. C. 스프로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1, 이상웅·김찬영 공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109-119.

56) 『개혁교의학』 4권, 866-867.

57) Augustinus, *Soliloquiorum Libri Duo*, 1.1.4. "*Deus supra quem nihil, extra quem nihil, sine quo nihil est. Deus sub quo totum est, in quo totum est, cum quo totum est.*" <http://www.augustinus.it/latino/soliloqui/index2.htm>